

[제 52회 호남예술제 심사평]

리듬과 박자감 향상

성악(초등) 국선환

초등학생들의 성악 실력은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고 느낀다. 특히 리듬과 박자감이 향상되고 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많이 배우고 있는 결과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가사 전달은 큰 향상이 없다. 자음과 모음이 발성과 연계돼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악을 전공한 선생님에게 별도 지도를 받은 것 같다. 어린이에게 성인처럼 인위적 발성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발성법이 더 자연스럽다. <전남대 교수>

곡 잘 다듬어 가능성 엿보여

성악(중·고) 임해철

올해 성악 부문은 대체로 풍성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중등부는 변성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한시 빈약한 부문이었는데 급년에는 나름대로 곡을 잘 다듬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고등부의 경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수상자들을 배출함과 아울러 다수의 학생들이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곡의 빠르기를 잘못 설정한 학생, 외국어 발음을 잘 못하는 학생, 숨 쉬는 곳이 틀린 학생, 꾸민 음을 잘못 해석한 학생 등 미진한 부분들이 노출되기도 했다. <호남신학대 교수>

무리하지 않는 템포 연주 돋보여

피아노(초등) 김혜경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요소중 하나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때 이번 예술제 학생들의 솜씨는 교사들의 향상된 수준을 읽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 중요한 기초가 잘 갖춰져 있었고 자기 능력에 무리하지 않는 템포로 연주하는 자세도 돋보였다. 거칠지 않은 터치와 정제된 음색, 음악성 등 모든 면에서 수준높은 실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5-6학년 지정곡은 우열을 가리기에 좀 무리가 있었다. 학생 수준도 저학년년에 비해 뒤떨어졌다. <조선대 교수>

악보에 충실한 피아노 학습 절실

피아노(중·고) 김신영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계적인 반복연습에 의해 암기하고 연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작곡가의 음악적 의도에 맞는 표현을 위해 악보에 충실한 피아노 학습이 절실하다고 본다.



고등부에서 최고상을 받은 학생은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훌륭한 테크닉으로 탁월한 연주를 보여 주었으나 부분적으로는 감정절제가 안돼 오히려 음악적 표현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좋은 재능을 보인 몇몇 고등부 3학년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잦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목포대 교수>

전통무용에도 더 큰 관심을

한국무용 정재만

호남예술제가 그 역사를 더해 가면서 초·중·고등부의 기량이 고루 높아지고 수준도 좋아졌다.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참가자나 지도교사의 대다수가 덜 성숙된 의식 때문인지 산만하고 시골꼴인데 급년 수준은 아주 조용하면서도 격조가 높았다.



하지만 전국 경연대회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들과 이 지역 예술 종사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전통부문 최고상이 나오지 않아 유감이다. 예향의 도시답게 전통무용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 바란다. <숙명여대 교수>

연령 맞는 소재·음악 선택해야

현대무용 이숙재

예술의 도시 광주는 한국 무용계의 메카이다. 올해 참가한 학생들의 기량과 신체적 조건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연령에 적합한 소재 및 음악의 선택에 있어 좀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

특히 군무에 있어 기량과 열정이 피부에 닿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학생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양대 교수>

기본동작에 더 충실하길

발레 문영철

초등부 경우에는 너무 프로를 흉내 낸 듯한 동작보다 정확한 발레 기본동작에 더 신경써야 한다. 중등부에서도 무리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고등부 학생들은 좀 더 신체적인 것을 염두에 뒀다 하며, 토슈즈 사용법에 대한 세밀한 교육이 아쉽다.

전체적으로 실력은 향상 됐지만, 너무 무리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이며 예년에 비해 참가자가 줄어드는 게 아쉽다. 무용하는 학생들의 참가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한양대 교수>

선율악기 합주 없어 아쉬워

국악 김정자

단체 타악부에는 주로 농악인 사물놀이만 출전하고 다른 선율악기 합주는 전혀 없었던 점이 매우 유감이다.



네 가지 농악기를 연주한다 하여 사물놀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정체불명의 대고(?)를 끼워서 연주하는 것은 농악의 격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음향도 복소리만 너무 커서 사물놀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앉은반보다는 선반의 농악 연주가 원래의 농악놀이 형태이고 선반은 활발하게 어린이들의 몸을 전부 움직이기 때문에 신체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교수>

악곡 선정에 보다 신경써야

합창 김성국

이 지역 어린이합창은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젊은 선생님들의 합창지도에 관한 연구 활동은 놀라울 정도다.



송원초의 정확한 음정과 깨끗한 음색 통일이 돋보였고, 봉선초의 균형미와 효과적인 악상 표현이 눈에 띄었다. 살레시오여중의 경우 음정, 당김음의 정확함이 매우 돋보였다.

악곡 선정에서는 보다 학구적이어야 하고 합창단의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충분한 표현 등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 <광주교육대 교수>

기초를 충실히 다졌으면

관악 김동수

호남예술제 심사를 지금까지 2회 정도한 것 같다. 학생들의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느꼈고, 역시 호남사람들이 예술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성이 풍부한 것이다.



앞으로 세계적인 음악가가 배출될 지도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음악의 3요소를 꼭 지적하고 싶다. 음정, 멜로디, 리듬. 사람으로 말하면 생리학과 같은 것이다.

학생들은 꼭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초를 충실히 다졌으면 한다. <대전대 교수>

질적으로 우수...많은 학생 참가를

현악 김영상

오랜 전통의 예술제답게 올해의 현악부문은 질적으로 우수했으며 특히 저학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대다수 참가자가 바른 자세와 좋은 이해력으로 연주에 임한것을 보고 이 지역의 미래가 밝을 것임을 예감한다.



이런 경향이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지도교사의 연구노력, 그리고 학부모의 끈기와 성원이 꾸준하길 바란다. 상대적으로 고학년은 곡의 수준에 연연하지 말고 더 나은 음악 표현을 할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하겠다. 내년에도 많은 학생이 참가하는 수준 높은 예술제가 되기를 기원한다. <목원대 교수>

악기에 맞춘 곡 선택을

양악 합주 임홍규

지도교사가 연주곡을 선정할 때는 어렵고 난해한 곡보다는 연주 당사자인 학생들이 감흥하고 이해해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제대로 전달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이번 경연의 경우 필요한 악기의 구성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이가 빠진 연주를 들려준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굳이 그 곡을 연주하고 싶다면 보유하고 있는 악기에 맞춰 다시 편곡을 해 연주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학교에서 악기와 악보 구입에 좀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탁 트인 야외에서 공연됐으면

그림사운드 이은철

3회째로 접어든 '그림사운드 페스티벌'은 기대 이상의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



실내에서 공연돼 음향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팀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특히 3회 연속 출연을 통해 발전된 기량을 선보인 'For-1'은 다른 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으며 'MONOCASE'의 뛰어난 가창력은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 지역 팀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실내보다는 탁 트인 야외에서 공연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전남과대학 교수>

표현 방법·시각 학생다움이 우선

미술 백기상

심사는 학생들의 사물에 대한 통찰력, 표현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특히 표현 방법과 시각에 있어 학생다움을 가장 우선하였고, 순수성, 독창성, 회화성, 표현력 순으로 살폈다.



이번 호남예술제는 어린 예술 인재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점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자율성과 순수함, 꾸밈없는 색채표현이 매우 흥미로웠다 것이다.

중·고생들은 사물의 표현에 대한 사실한 시각과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회화적 접근이 돋보였다. <광주교육청 장학사>

상징성 풍부한 작품 눈에 띄어

작문 전원범

예선을 거쳐 본심에 오른 작품이 400여편으로 많은 응모작들이어서 우열이 심한 편이었다.



특히 산문에서는 제목은 제목일 뿐인데 주제 모해하거나, 단순한 해석으로 형식수술한 경향이 있었다.

또 시에서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독특한 느낌의 해석이 적으며, 주어진 제목에 관련하여 상식적인 설명에 그친 글이 많았다. 우수작 가운데에는 성숙한 사고력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이 있었고, 상징성이 풍부한 작품도 상당히 눈에 띄었다. <광주교육대 교수>

문제 상황에 관심 갖는 글쓰기를

논술 이봉형

논술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창의적 사고력을 드러내는 글쓰기다. 이번 대회의 논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측정하고자 했다. 초등부에서는 환경 보존의 문제, 중등부는 핸드폰 사용의 심각성, 고등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 등을 물었다.



최고상 수상학생의 글을 보면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풍부한 관점에서의 방안 마련, 평소 시사적인 내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논술 공부의 자신의 삶을 둘러싼 문제 상황에 관심을 갖는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포항대 교사>

movies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주차가 편리한 극장 엔터시네마

항동시영 영화시영 *애매: 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icinema.co.kr 제일시네마

